

문헌 및 도상(圖像) 사료를 통해 본 마카오 '붕식(棚式)' 건축의 연원(淵源)과 구조 형식

The Evolution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Scaffolding Constructions in Macao Area from Historical Documents and Visual Materials

홍 서 영*

Hong, Shu-ying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한 동 수

Han, Dong-Soo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Abstract

The construction method of scaffolding structures is different from Mortise and Tenon and bucket arch structure of traditional large woodwork. It forms an independent construction system—fixing nodes with knots, a large number of diagonal braces are used to fix shelves and the structures mostly contain X-shape and triangular shape details. Simple ones include stalls, sheds, rain sheds, altars, lamp racks etc. But the scaffolding with larger scale and more complicated structure are modeled on archways, theatres and other buildings which are used in commercial and festival activities. At present, Macao, Hong Kong, Guangdong, Sichuan, Shanxi and other places in China have retained the custom of using scaffolding structures in important festival activities, but their uses, techniques and building types are slightly different from place to place. Due to building and demolishing at any time, the construction and service cycle is short. As a result, there are almost no physical objects left. We can only deduce the use and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ancient scaffolding skills through the colorful building styles that have been preserved with folk activities in various parts of China, the craftsmanship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by the scaffolding guild and artisans, and the description of cultural and historical materials and the mutual corroboration of visual materials.

주제어 : 도상 사료, 붕식 구조물, 탑봉 기술, 마카오, 문 앞 장식

Keywords : Historical Visual Material, Scaffolding Structure, Macao, Scaffolding Techniques, Doorway Decorations

1. 서 론

붕(棚)이란 대나무나 장대 등으로 만든 가설적 구조물로서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비계나 상업용 건축의 대문 앞에 세우는 대형 장식물에 사용되었으며, 붕을 조립하는 행위를 탑봉(搭棚)이라고 한다.

붕식 건축물의 건설방식은 전통적인 대목작의 구조와 달리 그 자체의 독립적인 건축체계가 있다. 매듭으로 연결점을 고정하고, 대량의 서까래를 이용해 뼈대를 고정하

며 구조물에 X자형과 삼각형 디테일이 많다. 필요시 조립과 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를 위한 소요 시간이 짧고 사용 시간도 짧아 오래된 실물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마카오 각 지역의 민속행사에 보존된 채붕양식과 “탑봉행회(搭棚行會)” 및 장인들이 남긴 기술을 중심으로 고대 탑봉 기술의 용도와 기술 특징을 규명하고, 문자 사료와 시각 사료의 내용을 통해 상호 검증하였다.

마카오 탑봉 기술의 용도는 주로 두 가지다. 첫 번째 용도는 건축물 건축 및 수리 시의 보조적 기반이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을 짓거나 수리할 때 세우는 비

* Corresponding Author: hongshuying@aliyun.com

계를 말한다. 비계는 마카오와 홍콩지역에서 응가(鷹架) 또는 봉가(棚架)라고도 한다. 두 번째 용도는 임시 구조물로서 각기 다양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현재 마카오 지역에서 탐봉 기술은 봉가 외에도 대형 화환과 가설 공연장을 짓는 데 사용된다. 과거 90년대에는 패루(牌樓)나 경기장 관람석, 수영장을 지을 때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설은 주된 건축물에 귀속되어 만들어지는 봉가와 달리 자체로 독립적이고 완전한 건물 형식이다.

북송 시대에 간행된 『영조법식』의 공한(功限)과 관련된 부분에도 ‘탁립(卓立)’과 ‘탐가(搭架)’¹⁾ 등 탐봉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이 책의 도양(圖樣) 부분에는 ‘탐가’와 관련된 어떤 그림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반면, 일부 옛 회화 작품 중에는 명확하게 탐봉 건축물이 나타나 있다. 특히 사실적 묘사를 했던 고대 도상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 제2종 유형의 탐봉 구조물은 오락 시설, 상업 시설 간판 등으로도 널리 사용됐다. 따라서 문헌 사료의 기록 내용과 도상 사료를 이미지를 기반으로 근현대 마카오 지역의 탐봉 건축물을 비교해보면 탐봉 기술의 발전사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된 연구 대상은 마카오 지역의 탐봉 건축이지만 그 기원과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오대 후기(五代後期) 이후의 도상 자료에 등장하는 탐봉 건축물을 분석하였으며 당시의 역사 문화적 문헌 기록과 결합하여 시각 자료 속 탐봉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학적 특징을 정리해 탐봉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마카오 지역의 장인들은 마카오 탐봉 기술이 오늘날의 하남성 개봉시(河南省開封市)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한다. 이는 북송 시대 장택단(張擇端)이 그린 『청명상하도(清明上河圖)』에 나오는 화려한 누각의 채루환문(彩樓歡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채루환문은 지금까지 발견된 고대 도상 재료에 등장한 최초 탐봉 건축물로, 오대(五代) 말기에서 송나라 초기에 활동했던 화가 위현(衛賢)이 그린 『갑구반차도(開口盤車圖)』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러한 형태의 문 장식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일례로 유척우(劉滌宇)는 그림 자료를 바탕으로 채루환문을 분석했는데, 『송대 채루환문 연구(宋代彩樓歡門研究)』²⁾에서 『청명

상하도』 속 비교적 눈에 띄는 채루환문 세 개의 구조적 특징 및 장식 세부에 대해 묘사했다. 또한, 이러한 탐봉 건물인 문 장식은 전통적으로 고대 축제에서 쓰이던 장식물에서 유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이준봉(李俊鋒)은 채루환문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 ‘산봉(山棚)’의 의미에서 출발해 ‘산봉’이 지닌 두 가지 함의를 설명했다. 첫째, 산봉이라는 명칭은 당나라에 시작되어 초기에는 유랑민과 이들의 거처를 가리켰다. 즉, 산야에 세운 단순한 형태의 봉옥(棚屋)을 의미했다. 둘째, 산봉이라는 단어는 송나라부터 더욱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채봉(彩棚)’, ‘악봉(樂棚)’, ‘희봉(戲棚)’ 등 용어와 함께 기념일에 재미를 위한 장식용 건축물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된 주장은 『송대 산봉의 구조 및 역할에 관한 초보적 탐구(宋代山棚形制和作用初探)』³⁾ 및 『송대 산봉 및 관련 명칭 분석(宋代山棚及相關稱謂辨析)』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청명상하도』가 나타내는 송나라 민족 풍습, 오락거리, 음식 문화 등에 관한 연구에서도 채루환문에 대한 설명이 적지 않게 등장한다. 하지만 대부분 잠깐 언급하는 수준일 뿐, 깊이 있는 연구는 없으며 논문의 주안점 역시 채루환문은 아니었다. 사실 장택단의 『청명상하도』에는 채루환문이 적어도 9개가 그려졌다. 다른 건축물에 가려진 경우도 있고 화폭의 제한으로 인해 다 그려지지 못한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마카오 탐봉 기술과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 9개 채루환문의 위치, 용도 및 건축학적 특징 등을 비롯하여 규모와 건축학적인 특징을 기존의 연구를 기반으로 보다 상세하게 분석해 보았다.

2. 건축사학에서 시각 사료의 가치

필자의 현지 조사와 구술 역사 자료의 수집 결과에 근거하여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마카오 지역의 장인들은 탐봉 기술의 기원은 오늘날의 하남성 개봉시라고 추정을 한다. 개봉은 바로 북송 시기의 동경 변량성(汴梁城)이다. 현재까지 북송 시기의 건축 장인 및 건축 기술과 마카오 지역의 탐봉 기술이 직접적 연관이 있

사, 제2권, 2012년, 59~64쪽

3) 이준봉(李俊鋒), 『송대 산봉의 구조 및 역할에 관한 초보적 탐구(宋代山棚形制和作用初探)』, 서안건축과기대학학보: 사회과학판(西安建筑科技大学学报: 社会科学版), 제6권, 2019년, 35~41쪽

4) 이준봉(李俊鋒), 『송대 산봉 및 관련 명칭 분석(宋代山棚及相關稱謂辨析)』, 상구사범학원학보(商丘師範學院學報), 제1권, 2020년, 72~76쪽

1) 이계(李誠) 지음, 허장욱(赫長旭), 란해(蘭海) 편역, 『영조법식』, 남경, 강소보광과학기술출판사, 2017년, 388쪽

2) 유척우(劉滌宇), 『송대 채루환문 연구(宋代彩樓歡門研究)』, 건축

다는 학술 연구는 없다. 그러나 당시의 그림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건축물의 건축 형식이나 기본 구조가 마카오의 탐봉 건축과 매우 비슷하거나 심지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탐봉 건축물과 관련된 문자 사료는 선진양한(先秦兩漢)의 다양한 문헌 사료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으며 회화 작품과 같은 시각 사료는 오대말·송초[五代宋初] 시기의 작품에서 확인되고 있다.

‘계화(界畫)’는 직선타와 계필(界筆) 등 전문적인 도구의 도움이 꼭 필요하며, 선을 중심으로 한 회화방식이고, 누각, 옥목, 반거[반차, 盤車] 등을 주요 묘사 대상으로 한 회화의 한 장르이다. 일찍이 진나라에는 이미 회화 속의 건축 형태에 관심을 가진 화가가 있었다. 동진(東晉)의 고개지(顧愷之)는 『화론(畫論)』에서 “건물은 일정한 형태를 지녔기 때문에 완벽한 그리기는 어려우나 좋아하기는 쉽다(檣榭一定器耳,難成而易好)”⁵⁾고 하였다. 송원시대에 계화의 발전은 절정기에 이르렀으며, 남송의 등춘(鄧椿)은 『화계(畫繼)』권7의 ‘옥목주차(屋木舟車)’ 항목에서 ‘계화’라는 단어를 사용해 ‘옥목화’가 그리는 대상임을 가리킨다.⁶⁾

중국의 대표적인 건축역사학자인 부희년(傅熹年)은 그의 『북송, 요, 금 회화 예술』 속의 고대 ‘건축화’라는 글에서 건축을 주제로 한 계화 즉 ‘옥목’을 당나라의 사람들은 대각(台閣) 혹은 누대(樓台)라 한다고 했다.⁷⁾ 당과 오대 북송시기 회화의 발전을 거치면서 옥목은 독립적인 회화의 한 종류로 자리 잡았다. 그 외에도 북송의 곽약허(郭若虛)는 『도화견문지(圖畫見聞志)』의 ‘회화 창작의 법칙과 기본지식에 대해 서술함(叙製作楷模)’에서 “옥목을 그리는 자는 비례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필치는 고르게 힘이 있어야 한다. 멀리 아득하게 공간을 꿰뚫어 보아 건물의 공간적인 체적과 투시 등의 관계에 주의해야 하며 건물의 입체감과 중심(縱深)을 표현해야 한다(畫屋木者,摺算無虧,筆畫勻壯,深遠透空,一去百斜)”⁸⁾고 하였다.

여기에서 ‘접산(摺算)’은 화가가 건축물을 그릴 때

먼저 법식 제도를 통해 화면의 건축물 비율 정도를 추정하는 것을 말하며, ‘일거백사(一去百斜)’는 투시법을 의미한다. 북송의 장택단이 그린 『청명상하도』의 건축 화법은 산점투시법(散點透視法)을 사용하였고 큰 건축물을 그릴 때는 확실히 계필, 직선자 등 계화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작은 가옥의 경우는 손으로 그렸다. 오대말-송초에 위현의 『갑구반차도』는 작가가 숙련된 축측투영법(軸測投影法) 능력을 사용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도화견문지』의 ‘회화 창작의 법칙과 기본지식에 대해 서술함’에서는 “가령 한전과 오진, 대들보와 기둥, 두공, 차수, 체목, 숙주, 타봉, 방경, 액도, 포간, 양두, 나화, 나만, 암제, 작막, 호손두, 호박방, 구두, 호좌, 비첨, 박수, 박풍, 화폐, 수어, 야초, 당구, 곡척 등을 모른다면 무엇에 의거하여 옥목을 그릴 수 있겠는가(設或未識漢殿吳殿、梁柱斗拱、叉手替木、熟柱駝峰、方莖額道、抱間昂頭、羅花羅幔、暗制綽幕、獼孫頭、琥珀枋、龜頭虎座、飛簷撲水、膊風化廢、垂魚惹草、當鈎曲脊之類,憑何以畫屋木也.)⁹⁾”라고 강조하였다. 즉, 화가가 건축구조나 영건법 및 장식 특징 등 지식에 익숙지 않다면 건축물을 제대로 그릴 수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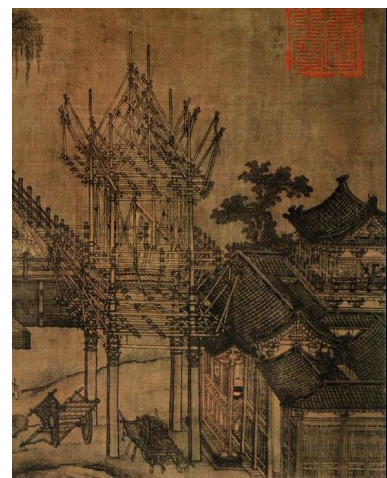


그림 1. 오대 위현, <갑구반차도>¹⁰⁾ 일부
53.2cm×119.3cm, 상해박물관

그 외에도 오대와 송나라의 화가, 특히 궁정화가들은 궁원건축과 민간의 모습을 표현의 소재로 사용하였는데 예를 들어 오대 남당(南唐)의 주징(朱澄), 북송의 유문통(劉文通), 지선(支選) 등이다.¹¹⁾ 북송 말년의 『선

5) 진전석(陳傳席), 『고개지 전집(顧愷之全集)』, 석가장: 하북교육출판사, 2016년, 84쪽

6) 등춘(鄧椿), 『화계(畫繼)』, 권7, 中華典藏: 鄧椿作品集, <https://www.zhonghuadiancang.com/xueshuozaji/huaji/22812.html> (검색일: 2023년 1월 10일)

7) 부희년(傅熹年), 『북송, 요, 금의 회화 예술(北宋、遼金的繪畫藝術)』, [중국미술전집, 양송회화(상)], 북경, 문물출판사, 1995년, 43쪽

8) 곽약허(郭若虛) 지음, 박은화 옮김, 『곽약허의 도화견문지(圖畫見聞志)』, 서울, 시공사·시공아트, 1989년, 50, 53쪽

9) 곽약허(郭若虛), 『도화견문지(圖畫見聞志)』 (<홍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본 상책 원고), 영인본 아카이브, 절강대학교도서관 제공, 26쪽

10) 위현, 『갑구반차도』, 상해박물관 소장.

11) 곽약허(郭若虛), 『도화견문지(圖畫見聞志)』 (<홍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본 하책 원고), 영인본 아카이브, 절강대학교도서관 제공,

화화보(宣和畫譜)에 실린 ‘궁실(宮室)’은 당시 건축화가 이미 전문적인 화종(畫種)으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한다. 장택단의 『청명상하도』에 나오는 차와 상점의 간판, 상점에서 판매하는 특산품 등은 이미 남송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에서 검증되었다. 그림 속 인물의 관복은 신분에 따라 각기 정해진 제도가 있고, 이 또한 『송사·여복지(宋史·輿服志)』에 기재된 것과 일치한다¹²⁾. 건축에 관해서는, 그림 속에 묘사된 변하 동단동수문(汴河東端東水門)과 상토교(上土橋) 일대의 하천 및 성루 등도 모두 명나라 이염(李濂)의 『변경유적지(汴京遺跡誌)』¹³⁾에서 묘사된 것과 일치한다. 이는 최소한 송대에 이르러서는 화가들이 건축 형상을 그릴 때 사실주의 화풍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며 특히 궁정 화원(畫院) 스타일의 회화작품들은 문자 사료의 시각적 증거로서 신뢰성과 학술적 가치를 가진다.

3. 송대 이후 도상 자료 중의 봉식 구조물

3-1. 채루환문(綵樓歡門)

‘채루환문’은 ‘채루환봉(綵樓歡棚)’이라고도 불리며, 그 역사는 오대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¹⁴⁾ 송나라에서는 당나라의 이방제도를 철폐하고 시민들이 거리에 상점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한 도시계획제도는 거리에 있는 상업건축 전면 양식을 크게 바꿔놓았다. 채루환문의 출현 또한 이러한 변화의 일환이다. ‘채루’(彩樓 또는 綵樓)는 화려한 장식을 설명하는 것이며 ‘환문’은 즐거움을 쫓는 곳이란 뜻이다. 송나라 이전에는 채루의 역할과 상업간 관련이 없었고, 일반적으로 명절이나 행사에 열리는 관동회에서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관등을 전시하는 건물을 칭했다.

『태평광기(太平廣記)』의 『신선이십육-엽법선(神仙二十六-葉法善)』에 기록하길, “개원 연간(713-741년) 초기, 정월 대보름날 밤에 현종은 상양궁으로 행차하여

등불을 구경했다. 상방서의 장인인 모순심은 30여 칸의 채루를 세워서 온갖 보석으로 장식을 넣었다. 채루의 높이는 150척이었으며 미풍은 등불과 장식물을 스치면 운율이 있는 소리를 이루었다. 등으로 용, 봉황, 교룡, 표범의 날아오르는 모양을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지가 않았다(開元初,正月望夜,玄宗移仗於上陽宮以觀燈。尙方匠毛順心。結構綵樓三十餘間。金翠珠玉。間廁其內。樓高百五十呎,微風所觸,鏘然成韻。以燈爲龍、鳳、螭、豹騰躡之狀,似非人力。)15)고 하였다.

채루에 설치된 화등의 모습을 “저 각양각색의 새와 짐승인 용, 봉황, 이무기, 치타 중 일부는 주위를 맴돌고, 일부는 뛰어다니며 일부는 춤추듯 날은 모든 천고만대는 마치 인간이 만든 것과 같지 않고 신의 작품과 같다”(那龍鳳螭豹百般鳥獸,盤旋的盤旋,跳脚的跳脚,飛舞的飛舞,千巧萬怪,似是神工,不象人力。)16)라고 하여 당 현종(唐玄宗)이 이를 본 이후 매우 기뻐하였으며 엽법선(葉法善)을 불러 함께 관등을 하였다고 묘사하고 있다.

『태평광기』의 『신팔-태학정생(神八-太學鄭生)』에는 당나라 수공 연간(垂拱年間, 685-688년) 화방[畫舫, 畫艦]에 지어진 누각이 기록되어 있는데 “화방 가운데에는 높이가 100여 척이나 되는 채루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위에는 휘장과 등롱이 있었고 사방으로 난간이 둘러싸 있었으며 장막과 향낭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탄연 고취자 있고... 그 중에서 한 여인이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中爲綵樓,高百餘呎。其上帷帳欄籠,儘飾帷囊。有彈絃鼓吹者...中一人起舞...17)”라고 한다. 이 이야기는 당나라 말기 진한(陳翰)의 『이문집(異聞集)』에도 실려 있는데 완전한 내용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

남송 시기 서적인 『동경몽화록』권2 『주점』의 기록인 “일반적으로 동경의 술집 문 앞에는 모두 묶는 방식으로 채루환문을 설치 있었다(凡京師酒店,門首皆縛綵樓歡門)”18)는 내용에 따르면 송나라에는 채루환문이 주로 주점 출입문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제작 수법은 “박(縛)”, 즉 묶는 방식이다.

39, 41쪽

12) 토크타 칸(脫脫) 등 지음, 청나라 무영전수서저 간각(武英殿修書處刊刻), 『송사권 백오십이·여복지 제잉백육·여복오(宋史卷一百五十二·輿服志第一百六·輿服五)』(<무영전이십사사(武英殿二十四史)>버전), 중국철학서전자화계획, https://ctext.org/library.pl?if=gb&file=7941&by_collection=7&page=1 (검색일: 2023년 1월 12일)

13) 『청명상하도』 중의 상토교와 그의 옆에 있는 성루의 공간 관계는 이염(李濂)이 쓴 변경유적지(汴京遺跡誌) 중의 “송경성(宋京城)”, “하거(河渠) 등 조목 내용과 일치한다.

이염(李濂), 『변경유적지(汴京遺跡誌)』(<홍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본 원고, 영인본 아카이브, 절강대학도서관 제공.

14) 진청(陳菁), 『송화 중의 채루환문』, 상해문박론총(上海文博論叢), 제3권, 2004년, 26~29쪽

15) 이방(李昉) 등 모음, 『태평광기(太平廣記)』(<홍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본 권20~26 원고), 1779년, 126쪽

16) 능몽초(凌蒙初), 『초각박안량기. 이각박안량기(初刻拍案惊奇.二刻拍案惊奇)』권7, 남창, 강서미술출판사, 2012년, 102쪽

17) 이방(李昉) 등 모음, 『태평광기(太平廣記)』(<홍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본 권298~340 원고), 1779년, 12~13쪽

18) 맹원노(孟元老),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홍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본 권1~5 원고), 1777년, 37쪽

이러한 내용은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초기의 채루환문에 대한 문헌 기록들이다. 그 외에도 광약허가 기록한 북송 서적의『도화견문지』에 화가 지선(支選)의 묘사에 '박각루자(縛脚樓子)'를 언급하였는데 “지선은... 주로 태평거와 강주거를 그렸고, 또 주점 근처의 박각루자를 그렸으며 계화와 잡화에 공을 들였다(支選...工畫太平車及江州車,又畫酒肆邊縛脚樓子,有分踈界畫之功,兼工雜畫。)19)라고 하였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채루환문의 제작 방법과 매우 흡사하다.

지선은 계화에 능하고 광약허가 말한 노새가 끄는 수레인 태평거와 사람이 미는 외바퀴 수레인 강주차는 모두 계화의 묘사 범위에 속한다. 지선은 북송 인종(仁宗) 시기(1010년-1065년)의 사람으로 이 시기 경사[현재 개봉시]의 주점 주변에는 모두 '박' 방식의 채루환문이 있었으며 채루환문은 곧은 대나무를 많이 사용하여 지었고 이 또한 계화 묘사의 범주 내에 있다. 따라서 용도로 보나 위치 또는 회화 제재로서의 형태 특징으로 보나 모두 '박각루자'가 채루환문의 다른 명칭이거나 채루환문의 한 종류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북송 시기 장택단의『청명상하도』에는 모두 아홉 군데 채루환문만 그려져 있는데 표1과 같다. 표1의 채루환문 중 완전한 양식도 있고 일부는 그림에 일부만 나타나 있어 전체모습을 알아보기 어렵다. 8번째가 여관으로 추측되며 9번째가 향신료 가게라는 것을 제외하면 그 외에 채루환문은 모두 주점이고 채루환문도 송나라 경사 주점의 상업적 상징이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음식점의 경우에는... 문 앞에 방목과 꽃무늬를 산봉처럼 묶어 놓았다... 서로 간격이 20-30변이다. 상점 입구 근처에 있는 창과 문은 모두 붉은색과 녹색으로 장식하였는데 이를 환문이라 불렀다 (大凡食店... 門前以枋木及花樣啓結縛如山棚... 相間三二十邊。近里門窗戶,皆朱綠裝飾,謂之“歡門”。)”20)고 하였다. 화문은, 또 “손님이 환락을 찾아오는 입구”라는 뜻이었다.

남송 오자목(吳自牧)의『몽양록(夢樑錄)』에 기록하길, “말하자면 음식점 문 앞에 세우는 의례적인 장식이니, 그 문의 앞에는 방목 및 꽃무늬를 엮어 산봉처럼 만들었다... 상점 입구 근처의 창과 문은 모두 주, 녹 등 색을 사용하여 오색찬란하게 장식된 것을 환문이라고 한

다(且言食店門首及儀式。其門首,以枋木及花樣啓結如山棚...一帶近里門面窗戶,皆朱綠五彩裝飾,謂之歡門。21)”라고 하였다.

이 두 부분의 묘사는 매우 유사한데 즉, 동경 변량 성내의 음식점 (주점 포함)은 대부분 출입문을 채루환문으로 장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외에 있는 '연하가(沿河街)'내 '소주(小酒)'를 파는 주점 채루환문의 구조가 완전하며 아무 장식 없으며 구조 또한 단순하다. 두 열 입간(立桿) 위에 뾰족한 산자형(山字形) 구조가 씌워져 있다. 이는『청명상하도』의 첫 번째 채루환문이다. 문 앞쪽에 입간이 세워져 있고 처마를 경계로 처마 위의 입간의 길이와 처마 아래 입간의 길이가 비슷하다. 처마와 평행을 이루는 것은 두 개의 가름대로 맨 앞부분이 입간과 교차하며 줄로 매듭을 지어 고정하였다. 가름대 위에 두 개 혹은 세 개의 대나무를 한 조로 삼각형 모양이 몇 개 있고 그 꼭대기는 각각 전체 채루환문의 정면 윗부분과 좌우 양쪽을 향하고 있어 마치 처마 위에 있는 금관처럼 보인다. 이런 삼각형이 같이 있는 형상이 한자 '山'과 같아 산봉(山棚)이라 부른다. 산봉에 대나무 한줄기가 밖을 향해 튀어나와 있으며 주점 깃발이 걸려 있고 위에는 '소주'라고 쓰여 있다. 신주(新酒)에 비하면 가격이 저렴한 잔술이며 사시사철 만들어 바로 팔고 일반 백성들도 사 먹을 수 있는 가격이다.

또 다른 종류인 채루환문 구조는 더욱 독립적인 누각에 가까운 패루인데, 예를 들면 십천각점(十千脚店) 앞의 채루환문이 그것이다. 비록 이 채루환문의 밑바닥 지지대 부분은 주점의 1층과 같지만, 주점의 처마부터 위까지 대나무 지지대가 층층이 겹쳐 높이 솟아있어 상부는 전형적인 산꼭대기 모양이고 사면이 모두 상점 내부 공간과 맞닿지 않는 누각이다.

송나라의 주점은 대형주점인 정점(正店), 2등급 주점인 각점(脚店), 소규모 주점인 박호(拍戶)로 나뉜다. 정점에서만 '관국양주(官麴釀酒)'가 가능하고, 도매, 소매 겸업을 할 수 있었으나 각점과 박호는 정점에서 사 온 술을 판매했다.

'손양(孫羊)'이라는 정점의 채루환문에는 장식용 꽃가지와 수국이 있으며 아래에는 울타리가 있고 세 개의 바닥 등에 각각 '향요(香醪)', '정점(正店)', '손(孫)'이

19) 광약허(郭若虛), 『도화견문지(圖畫見聞志)』 (<흠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본 하책 원고), 영인본 아카이브, 절강대학교도서관 제공, 41쪽

20) 맹원노(孟元老), 『동경몽화록』, 정주, 중주고적출판사(정주), 2010년, 19쪽

21) 오자목(吳自牧), 『몽양록』, 향주, 절강인민출판사, 1984년, 146쪽

22) 그림출처 : 고궁박물관 『고궁명화기(故宮名畫記)』 <https://minghuaji.dpm.org.cn/paint/appreciate?id=592d80e225aac624977fee2e19452c1f> (검색일 : 2023년 1월 9일)

12 논문

라고 쓰여 있다. 그 중 ‘향요’라고 쓴 바닥 등의 한쪽 측면 문에는 치자 등이 걸려 있으며 그 외형과 치자나무의 열매 모양과 매우 흡사하여 이곳이 기생과 동침할 수 있는 주점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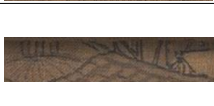




“경성에는 정점이 72곳이 있는데...(在京正店七十二戶...)”²³⁾라고 했는데 상인과 관리를 받는 곳 외에 황제의 친척과 귀족을 받는 곳도 있었다. 손양 정점은 2층으로 채루환문은 1층 출입문에서 위로 뻗어있고 가장 높은 곳은 주점 지붕의 반 정도에 달하며 또한 2층으로 되어있어 층 사이에 테라스가 바깥쪽으로 반 정도 튀어나와 있으며 장식이 매우 화려하여 주점 내의 번창한 사업과 잘 어울려진다. 아울러 그 반대편에 ‘구주조이(久住曹二)’라 쓰인 간판이 있는 여관 문 앞의 채루환문은 두드러지게 수수하다. 이 채루환문의 산봉 아래부분은 건물에 가려져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규모를 알 수 없다.

『청명상하도』 외에도 송대 초기 위현의 작품으로 전해지는『갑구반차도』에도 채루환문이 확인된다. 이 채루환문 또한 주점의 것이며 문에 ‘신주’ 두 글자가 붙어있는 것을 보아 대형 주점일 것이다. 이 채루환문의 양식은 청명상하도의 십천교점과 비교적 유사하며 모두 ‘적각누각(吊脚樓閣)’ 양식이다. 아래에서 위로 보면, 적각 밑바닥-중간-2층 공간-산봉 4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지붕과 2층 ‘누각’의 접점과 중간 부분 모두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형태의 울타리가 있는 평좌(平座) 구조이다. 밑바닥은 네 개의 사변형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면배치는 사각형이고 1층은 비어있다. 처마와 같은 높이에 있는 것이 중간 부분이며 지면과 평행을 이루는 7겹의 대나무 그물이 한데 묶여있고 대나무 그물 내의 대나무들은 서로 수직이며 매듭으로 고정하였다. 그의 상부 봉 구조는 십천각점의 채루와 달리 1층 누각식의 채루에는 명확한 뾰족한 ‘지붕’이 있는데, 십천각점의 윗봉은 여러 개의 솟아있는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딕 성당의 꼭대기와 비슷하다.

3-2. 탄봉(攤棚)과 판인첨(版引簷)

당나라 시기에 주거용 건축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했던 ‘시제(市制)’와 ‘방제(坊制)’는 북송시기에 들어서며 서서히 사라졌고 벽을 허물고 개점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벽’에서 해방되자 상점이 길거리를 침범하는 문제가 생겨났다. 일부 상점은 영업 면적을 넓히기 위해 길거리 근처까지 위법 건물을 지었으며, 또 일부 소매상

표 1. 장택단 본 『청명상하도』중의 채루환문

위치	그림 ²²⁾	건축속성	특징
연하가(沿河街) 내		박호(拍戶): 소주(小酒) 파는 주점	쌍배입간식 (雙排立樑式)
제2 부두 우측		주택형 주점	쌍배입간식 (雙排立樑式)
제2 부두 좌측		주점	미상
상토교(上土橋) 맞은편 기슭(1)		미상	미상
상토교(上土橋) 맞은편 기슭(2)		미상	미상
상토교 남안		2등급 주점 십천교점 (十千脚店)	다층 누각식
성밖		1등급 주점 손양정점 (孫羊正店)	반 둘러진 쌍중구조 (복층 있음)
손양정점 (孫羊正店) 맞은편		조이(曹二) 여관 (추정)	미상
유가 향포		향신료 가게	쌍배입간식 (雙排立樑式)

은 길에 탄봉[좌판]을 치고 물건을 팔아 거리 경관을 해치고 교통을 방해했다. 따라서 개봉부(開封府)는 ‘가도사(街道司)’를 신설해 도시의 도로를 관리하고 정리하였다. 그러나 ‘길거리 침범[侵街]’ 문제가 심각해 전면적으로 위법 건물을 철거하거나 탄봉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했고 관리와 길거리 침범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거리의 경관과 질서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

23) 맹원노(孟元老), 『동경몽화록』, 정주, 중주고적출판사, 2010년, 47쪽

표 2. 『청명상하도』중의 길가 탄봉과 우물

일부	용도
	집집탄봉 (건축 벽에 인접)
	식점 부속 차양봉
	소매매 탄봉 (독립 구조)
	우물
	연하아좌 (沿河雅座)
	주점 부속 석봉(席棚)

『오대회요(五代會要)』 26권 『가항(街巷)』의 기록에는 “너비가 50보(약 74미터)²⁴⁾인 거리의 양쪽에는 각 5보(약 7.4미터) 이내에 집을 심거나, 우물을 파며 차양봉을 설치하도록 허용을 한다. 너비가 30보(약 44미터)에

24) “보(步)가 길이를 재는 단위이다. 『소이아·엄도(小爾雅·廣度)』 기록: “跬, 一舉足也; 倍跬謂之步。” 즉, 한 보는 양 발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으로 현재의 두 걸음을 의미한다. 한 쪽발이 한 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반 퀘(跬)라 한다. 수당(隋唐)시기의 1리는 대략 530미터이며 1리는 360보이고 이 방식은 명청시대까지 사용되었고, 고대에 한 보는 약 1.47미터이다. 역대 도량형(度量衡)과 다르게 수당 시기 계척용 척의 단위환산에도 미세한 차이가 있어 본문은 1.47미터를 한 보로 환산하였으며 소수점 두 자리는 제거하였다.

서 25보인 거리에는 각 3보 이내로 하고, 그 이하로도 차이를 둔다(其京城內街路闊五十步者,許兩邊人戶,各于五步內,取便種樹掘井,修蓋涼棚;三十步以下至二十五步者,各于三步,其次有差. 25)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청명상하도』에 모두 나타나 있다. 표2에서의 좌판 중 일부는 건물 외벽에 설치하였다. 네 개의 지지대 위에 대나무나 식물 줄기로 엮은 천막을 올렸다. 일부는 건물의 처마에 차양 천막을 바깥 방향으로 이어 붙였는데 아래에는 대나무를 세우고 공간의 삼면이 길을 향해 있으며 한 면은 건물 내부와 같으며 위의 표2 두 번째 것이 그 예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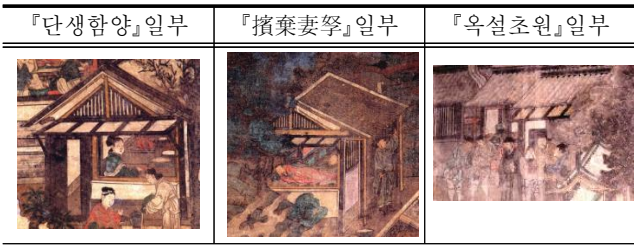
『청명상하도』 중의 변하(汴河) 연안 주점에는 또 매우 흔하면서도 독특한 부속 공간이 나오는데 강가에 있는 별실 연하아좌(沿河雅座)이며 위의 표2 다섯 번째 것이 그 예시이다. 엄연히 말해 연하아좌는 강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길거리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어 ‘도랑(挑廊)’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간란식 건물과 비슷한 목봉(木棚)이며 마치 빈 야외 테라스 같고, 평좌(平座)와 적각루(吊脚樓)를 결합한 건축 구조이다. 연하아좌에서 변하(汴河) 쪽에는 손님이 주점과 배를 오가기 편하도록 작은 오솔길이 나 있다. 연하아좌의 마루 밑바닥 지형은 길바닥보다 낮은 변경 연안이며 주점 건물의 나머지 부분이 평평한 땅에 지어졌기 때문에 연하아좌와 주점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연하아좌의 밑바닥 부분에 두 겹의 나무 기둥을 설치하였다. 그중 바깥쪽의 세 개의 나무 기둥은 지면부터 지붕까지 뻗어있으며 안쪽의 총 6개의 짧은 기둥으로 지면과 건물 바닥을 지지하였으며 두 겹의 기둥 사이에 가로대를 넣어 안정성을 더했다. 연하아좌의 마루를 자세히 살펴보면 울타리 밖까지 이어진 나무막대를 볼 수 있다. 보통의 누각이 평좌 지면에 판자와 사방에 안시판(雁翅板)을 설치하는 것과 달리 연하아좌의 지면 구조는 더 단순하다. 지면에 길이가 같은 대나무 혹은 나무막대를 중횡 방향으로 가지런히 두 겹 쌓고 가로 방향의 한 층이 세로 방향 층의 아래에 놓인다. 각 층의 판재 길이는 일치하며 횡단면은 모두 가지런한 직사각형으로 잘려져 있다. 지붕에는 기와를 얹지 않아 기본적으로 팔각집 모양이며 처마는 대오리로 엮어 차양판을 만든다. 이러한 차양 구조는 『영조법식』에서 ‘판인침’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맞배지붕 용마루의 ‘판인침’을 통해 단순한 지붕 모양에 시각적 차원을 더해, 팔각지붕

25) 왕부(王溥), 『오대회요(五代會要)』 하, 장사, 상무인서국, 317쪽, 1941

14 논문

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 원나라 영락궁(永樂宮) 벽화에 이러한 양식이 많이 그려져 있다. (표3)²⁶⁾

표 3. 원나라 영락궁 벽화 중의 판인침



판인침은 많은 상점의 처마에서 볼 수 있으며, 차양의 기능 외에도 원래의 실내 공간을 길가에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일부 판인침 밑에는 입간이 지지하고 있고 일부는 사간(斜桿, 『영조법식』에서의 挑幹)을 통해 지지하고, 사간의 한쪽은 판인침을 받치고 다른 한쪽은 처마 아래의 입간을 받치고 있다.

[표 2]의 ‘연하아좌’와 ‘주점 부속 석봉’에서 보여주는 길가, 하천가 설비는 모두 하역하기 쉬운 임시공간이며 이 공간 때문에 길가와 길 양측의 상업건축 사이에 불안정한 공간적 관계가 형성된다. 또한, 길가 건축의 1층과 길에서의 공간 활용이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러한 임시구조로 인해 건축물의 내 외부공간의 경계가 흐려졌으며 길가 공간과 건축 실내 공간이 유동적으로 변하여 길가는 길 양쪽 상점의 확장된 공간이 되었다.

확장된 도랑과 상점의 차양방 외에도 표2의 “점집 탄봉”, “식점 부속 차양방”과 “소매매 탄봉” 예시의 봉은 가장 단순한 봉식 건물의 일종이다. 그들은 직사각형 모양의 네 개의 입간에 덮개를 씌우는데 덮개는 채색 천, 명석으로 덮거나, 대나무 한 개로 비스듬히 봉을 받치는데 대나무 위쪽은 대오리를 이용해 둥글거나 네모난 우산 모양을 만든다. 자세히 보면 이러한 덮개의 꼭대기 구조는 판인침 만드는 방식 및 구조와 매우 흡사하다.

3-3. 찰채(扎彩)와 가채(架彩)

명나라에 이르러 ‘채루환문’인 용어는 사료에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채루’와 관련된 기록은 매우 많으며 문학 작품에 많이 등장하고 특히 신랑감을 고르는 장면[抛繡球求親]에 많이 나온다.

명나라에 오승은(吳承恩)의 작품 『서유기(西遊記)』 93회 『금고원에서 고담으로 인하여 천축국 조정에서 왕의 배우자를 만나다[給孤園問古談因, 天竺國朝王遇

偶]』²⁷⁾중에는 채루라는 글자가 여러 번 나온다. 여기에는 당승(唐僧) 사제가 천축국(天竺國)을 지날 때, 사거리에서 “국왕의 공주를 만나는데...사거리에 있는 높은 ‘채루’에서 비단 공을 던져 왕의 사위를 골랐다(國王的公主娘娘...正在十字街頭,高結綵樓,拋打繡球,撞天婚招駙馬)”는 이야기가 나온다. 책에는 이 채루에 대한 묘사는 많지 않고 “좌우에 50-70명의 연지를 짝은 아리따운 여자가 있다(左右有五七十姻嬌繡女)”, “길목에서 채루를 높이 쌓아 올리시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다(下樓)”, “아랫층” 등의 글을 봤을 때 임시 건설된 이 채루 규모가 작긴 하나 50-70명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으며, 2층 혹은 그 이상의 높은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명나라 만력(萬曆) 시기 서적인 『채루기(綵樓記)』는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 자주 공연되는 전통 연극이며, 제1막이 바로 송나라 한 재상의 딸이 채루에서 비단 공을 던져 남편을 고르는 이야기이다.

청나라에 이르러 봉식 구조물은 자금성의 가채와 산시(山西) 등지의 행사용 채루로 대표가 된다. 청나라 광서(光緒) 14년(1889년) 광서제 혼례 무렵, 자금성에 큰불이나 태화문(太和門)이 크게 손상되었으나 황후의 꽃가마가 입궁할 때 반드시 태화문을 지나야 했다. 혼례가 40일 남은 상황에서 서태후 자희(慈禧)는 탑재장인(搭材匠人)에게 탑재 기술로 태화문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그 외 중요한 건물의 문 앞에도 가채로 장식하라고 하였다. 태화전(太和殿) 아래 계단에도 황제 친인척 대군들의 연회 참석을 위해 임시로 차양봉을 설치하였다. 이는 탑재 기술의 건축물 및 장식에 내무부 원외랑 경관(內務府員外郎慶寬)을 필두로 제작한 『대혼도(大婚圖)』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대혼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채는 정문 장식에 주로 쓰였으며 오색 끈과 천으로 휘감았으며 꼭대기 부분은 채루환문과 같이 모두 산(山)자 모양의 많은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장식 방법은 마카오 탑재공예 중의 화패(花牌)와 매우 흡사하다.

대나무, 채색 종이, 비단을 이용해 된 태화문을 밤낮 없이 만들게 하였으며 이를 길거리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종이문(紙糊門)’이라 불렀다. 그러나 『대혼도』에서 태화문의 실제 종이문 흔적을 거의 볼 수 없다.

26) 金維諾(김비락), 劉建平(유건평), 『영락궁벽화전집(永樂宮壁畫全集)』, 1997년, 천진, 천진인민미술출판사, 251, 253, 261쪽

27) 오승은(吳承恩) 지음, 임흥빈 옮김, 『서유기. 제10권』, 2003년, 서울, 문학과지성사출판사, 79~107쪽

표 4. 광서시기 『대혼도』에 나타난 가채와 차양붕

권 호	일 부(28)	건물유형
제1권 『황후출궁지제도(皇后出宮至邸第圖)』		낭하가채 (廊廡架彩)
제1권 『황후출궁지제도(皇后出宮至邸第圖)』		낭하가채 (廊廡架彩)
제6권 『책립봉영도(冊立奉迎圖)』		성루가채
제6권 『책립봉영도(冊立奉迎圖)』		성루가채
제8권 『경하반조연예절도(慶賀頒詔筵宴禮節圖)』		차양붕
제8권 『경하반조연예절도(慶賀頒詔筵宴禮節圖)』		차양붕

만족(滿族) 학자 과이가 진균(瓜爾佳·震鈞)의 『천지우문(天咫偶聞)』권1 『황성(皇城)』에는 “오랫동안 내정에서 일을 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진위판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높이가 10장이나 되는데 거센 바람에 흔들림이 없어 기술이 신기에 이르렀다(雖久執事內廷者, 不能辯眞僞, 且高逾十丈, 栗冽之風, 不能動搖, 技至此神也.)”²⁹⁾라고 하였는데 이는 장인들의 실력이 뛰어나 묶어 만든 ‘태화문’이 진짜와 같을 뿐 아니라 거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이어서 내정에 오래 있었던 사람도 가짜라는 것을 알아볼 수 없다는 말이다. 3가지 상황의 『대혼도』 모두 태화문 위에 쌍희자(雙喜字)가 쓰인 화패와 입간의 중간에 매여진 용과 봉황 장식을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입간 하부에는 석패방(石牌坊)에서 자주 쓰이는 길고 높은 주춧돌을 놓았다.

찰채는 탑붕과 같은 기술은 현재 중국의 산서성과

사천성 등지의 무형문화재이다. 비교적 유명한 산서 평요(平遙) 지역의 ‘청서채문(淸徐綵門)’은 ‘진식채루(晉式綵樓)’와 ‘한씨채루(韓氏綵樓)’로도 불린다.

그 건설 및 장식 방법은 마카오 탑붕 기술 중의 패방, 과가패루(跨街牌樓), 화패와 매우 흡사하다. 서연홍(徐娟紅)의 고증에 따르면 한씨채루는 당나라에서 유래하였다.³⁰⁾ 그러나 그 발전 전성기는 명·청 시대이며 주로 경축일, 결혼식, 장례식 등 중요한 장소에 쓰였다. 건축 구조는 ‘퇴(腿)’, ‘문(門)’, ‘정(頂)’의 계층 단위로 그 규모를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사퇴오정식(四腿五頂式, 기둥이 4개와 지붕이 5개인 방식)’, ‘일문사정식(一門四頂式, 하나의 문에 지붕이 4개인 방식)’ 등의 방식이며, 이는 마카오 지역에서 여전히 전통적 ‘정수(井數)’를 봉식 건물 규모의 기본 단위로 삼는 것과는 다르다. 이와 유사한 기술은 광동성의 요평(饒平)과 매록(梅菉), 사천성 아안(雅安) 등 지역에서 볼 수 있으며 이 설치 기술과 용도 모두 청서채문과 비슷하다.

표 5. 사퇴구정식(四腿九頂式)의 청서채문루

전 면	윗부분 양식	채천 장식물
		

그러나 광동성의 탑붕 기술은 현재 대부분 비계를 세울 때만 볼 수 있으며, 사천 지역의 탑붕 기술은 노산(蘆山) 지역 “필월채루회(八月綵樓會)”와 같이 주로 경축 행사 중 등루(燈樓)의 용도로 사용한다. 금속 건설자재로 대나무를 대체하거나 현대 기계를 통해 채루의 외관을 프린트하는 등 현재 중국 내륙의 봉식 건축에는 다양한 현대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 현재 마카오는 중추절 패루를 건축할 때에 한해 가끔 외부 장식에 KT 보드[Foam Board]와 디지털 프린트 기술을 이용한다. 그 외에도 중국 대륙 지역은 현재 대나무로 건설 발판을 짓는 게 금지되어 있으나 탑붕 기술의 전반적인 기술이 마카오와 홍콩지역에서 더욱 잘 보존되어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한층 더 발전하고 보호받게 되었다.

4. 마카오 탑붕 건축의 구조와 유형

4-1. 마카오 탑붕 건축의 구조

28) 경관(慶寬) 등, 『대혼도』(1-8권), 고궁박물관장 소장, 문화재번호: 고(故)5887

29) 과이가·진균(瓜爾佳·震鈞), 『천지우문(天咫偶聞)』, 대북, 문혜출판사, 1968년, 18쪽

30) 서연홍(徐娟紅), 『산서성 청원진 채문루의 지역적 해석(山西省淸源鎮彩門樓的地方性解讀)』, 요녕대학 석사논문, 2012

『설문해자(說文解字)』 제7권 『목부(木部)』에서는 “붕(棚)은 즉 잔(棧)이며, 뜻은 목(木)이고 붕(朋)으로 읽는다(棚：棧也。從木朋聲。”³¹⁾, “잔은 즉 붕이며, 대나무 수레를 잔이라고 한다. 이는 목과 잔(棧)을 합친 글자다(棧：棚也。竹木之車曰棧。從木棧聲。)”³²⁾라고 기록하였다.

대목(大木) 시공은 당송시대부터 명·청 시대까지 대체로 동일하며 대략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장간(杖桿)으로 크기를 나누고, 전당[展拽, 임시 설치]을 한 다음 기둥을 세워 안정시키는 탁립(卓立)과 안감(安勘)을 한 다음, 서까래를 박고 동여매는 정연[釘椽、結裹]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다.³³⁾

법식으로 계산한 위치에 기둥을 세우는 것을 ‘탁립’이라고 한다. 『영조법식』 제19권 『대목작공한삼(大木作功限三)』에 “전당에 대들보와 기둥 등 작업 공한(殿堂梁、柱等事件功限)”은 “건물 안내 사용하는 부재 기둥과 액 등은 설치나 교할할 때는 이런 부재의 조작 공한에 4분을 더한다…탁립이나 탑가때…또 공한 2분을 더한다…그 탁립, 탑가 등, 누각이 5칸, 3층인 경우 2층 평좌부터 또 공한 2분을 더한다 (凡安勘、絞割屋內所用名件柱、額等,加造作明件功四分…卓立搭架..又加二分…其卓立、搭架等,若樓閣五間,三層以上者,自第二層平座以上,又加二分功.)”³⁴⁾라고 기록되어 있다.

‘탁립’ 전에 반드시 ‘탑가’를 먼저 해야 하는데 ‘탑가’는 비계를 놓는 것을 말한다. 그 외에 『영조법식』의 『소목작공한(小木作功限)』 중 여러 번 언급되는 ‘안탁(安卓)’은 설치와 ‘탁립’을 말하며 ‘탁립’에서 말하는 기둥을 세우는 단계는 대목작(大木作)에 속한다. 따라서 ‘안(安),’ 탁(卓)’을 함께 쓰는 경우는 대부분 설치라는 의미이다.

마카오 붕의 기본구조는 ‘침(針)’과 ‘횡건(橫牽)’으로 격자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침’과 지면이 수직을 이루는데, 이렇게 되면 붕 위의 하중을 지면에 수직으로 전달하게 되어 벽면을 따라 몇 줄의 ‘침’을 세우는데 이

를 몇 줄의 붕이라고 부른다. ‘횡건’과 지면이 수평면이 되면 하중이 ‘침’에 전달되고 붕의 고정을 용이하게 된다.³⁵⁾

표 6. 붕의 나무를 연결하는 매듭 종류

분 류	사 진 ³⁶⁾
반쪽짜리 매듭[半邊掖結]	
파배기 매듭[麻花結]	
말발굽 매듭[銀錠結]	
병 매듭(瓶子結)	

붕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별도의 경사 부재인 사탱(斜撐)을 쓴다. 이것들이 붕을 구성하는 기본 골자이다. 청나라의 『공정주법칙례(工程做法則例)』에 따르면 전통 수직 운송 도구는 세워놓은 붕가를 이용해 저울대를 설치한 것이며 ‘괘천칭(掛天秤)’이라고 부른다. 인력이나 원치[絞盤]로 줄을 당기면 한쪽의 무거운 물건을 작업이 필요한 곳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는데 이를 ‘관가(貫架)’라 부른다. 세워진 붕에 말뚝망치[樁錘]를 설치하고 밧줄을 묶어 말뚝망치를 아래위로 움직이면 말뚝이 지면에 처박히는데 이를 ‘타반가자(碼盤架子)’라 부른다. ³⁷⁾

붕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통나무와 단단한 잡목(雜木類), 소나무판을 이용하고 모두 대나무 혹은 일부만

31) 『설문해자(說文解字)』는 동한시기의 책인 설문을 후대에 추가 수정한 것으로 상당부분이 동한시대 이후의 기록이다.

허신(許慎) 지음, 금하연, 오채금 엮음, 『설문해자(說文解字) 성부 사전(보급판)』, 경북, 일월산방출판사, 2013년, 931쪽

32) 허신(許慎) 지음, 금하연, 오채금 엮음, 『설문해자(說文解字) 성부 사전(보급판)』, 경북, 일월산방출판사, 2013년, 683쪽

33) 『정교대목작(精巧大木作)』, 중국과학원과보온플랫폼(中國科學院 科普云平台), <http://www.kepu.net.cn/gb/civilization/architecture/timberwork/tbw201.html>(검색일 : 2022년 6월 27일)

34) 이계(李誠) 지음, 혁장욱(赫長旭), 란해(蘭海)(편역), 『영조법식』, 남경, 강소봉황과학기술출판사, 2017년, 388쪽

35) 곽미기(郭美琪), 『做“竹”天下——搭棚業』, 마카오 잡지, 제107권, 2015년, 68~74쪽

36) 『팔대작(八大作)』의 『탑재작-상보상성(搭材作-相輔相成)』, 궁극 박물관, <https://www.dpm.org.cn/auditions/masterpieces/detail/253754.html> (검색일 : 2023년 1월 5일)

37) 애신각라·윤례(愛新覺羅·允禮) 등, 『공정주법칙례(工程做法則例)』(청·옹정 12년 간행본), 권54, <탑재용료(搭材用料)>, 1734년, 1~4쪽

대나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각 나무가 연결이나 교차 부위에서는 포승줄[흰색의 삼밧줄, 직경 1.2cm]와 긴 끈[즉, 연승(連繩), 삼고승(三股繩), 노란색 삼밧줄, 직경 0.4cm]로 묶고 '표곤(標棍)'으로 조인다. 각기 다른 위치에 사용하는 매듭은 반쪽액 매듭[半邊掖結], 파배기 매듭[麻花結], 말굽매듭[銀錠結, 병자매듭[瓶子結]이 있다.³⁸⁾ 현대에는 일반적으로 나일론 끈이나 금속 버클로 고정한다.

표 7. 탑재작 작업 순서

순서	사 진 ³⁹⁾
1	
2	
3	
4	
5	
6	
7	

송대부터 삼목 통나무로 붕을 만들고 채색 천으로 만든 꽃 모양의 장식물을 장식하고 받침대·패루·누각 등의 양식을 갖춘 것을 '채루환문', '산봉'이라고 하며 청나라까지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언급한 용도 외에,

38) 『팔대작(八大作)』의 『탑재작-상보상성(搭材作-相輔相成)』, 고궁 박물관, <https://www.dpm.org.cn/auditions/masterpieces/detail/253754.html> (검색일 : 2023년 1월 5일)

39) 『팔대작(八大作)』의 『탑재작-상보상성(搭材作-相輔相成)』, 고궁 박물관, <https://www.dpm.org.cn/auditions/masterpieces/detail/253754.html> (검색일 : 2023년 1월 5일)

탑봉 건축물은 여름에 차양붕과 그늘붕, 겨울엔 난봉(暖棚)과 방풍붕[추위막이 덮개]으로 쓰인다. 가장 단순한 상업 노점은 대체로 대나무 한 줄기로 동그랗거나 네모난 차양 덮개를 받치는데 이러한 붕은 '붕료(棚寮)'라고 하며 명·청시대 마카오 문헌 사료 혹은 회화 작품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경조사 때 사용되는 붕은 층이 있는 건물 형상으로 만들어 사면에 회랑을 내고 건축물을 본떠 난간 등을 만든다.

명·청시대에 자금성의 탑재작(搭材作) 장인을 '탑재장(搭材匠)'이라 불렀다. 명나라에 공역(工役) 중에는 일찍이 '탑재장'이라는 직업이 존재했다.⁴⁰⁾ 청나라 내무부에는 탑재장도 있는데⁴¹⁾ '승자장(繩子匠)', '삼고장(杉篙匠)', '채자장(彩子匠)'과 '선석장(繕席匠)' 등이 있었으며 모두 탑재(搭材)와 관련된 일을 하는 장인이었다. 마카오 지역에는 대체로 탑봉 장인을 '탑붕료(搭棚佬)' 혹은 '탑붕사부(搭棚師傅)'라 불렀으며 각기 붕공장, 붕회사와 탑봉장인들은 마카오 붕업직업공회(澳門棚業職業工會)를 조직하여 공회의 관리를 받는다.

4-2. 마카오 탑봉 건축의 유형

붕가는 일반적으로 건물을 세우고, 수리할 때 활용되는데 오늘날 마카오의 크고 작은 건축 공정에서는 모두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8. 붕가의 주요 유형

단봉(單棚) ⁴²⁾	쌍봉(雙棚) ⁴³⁾	붕가의 응용 ⁴⁴⁾

이 외에도 독립적인 탑봉건축은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했다. 과거 마카오에서는 자동차 경주(Grand Prix Macau), 용선 경기[龍舟賽], 복싱 경기, 투우(鬥牛), 극장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관람석, 수영장, 임시 통행교

40) 이동양(李東陽) 등, 『대명회전. 오십육(大明會典.五十六)』, 권189, <공장이(工匠二)>, 영인본 아카이브, Harvard-Yenching Library 제공, 141, 144쪽

41) 『대청회전칙례(大清會典則例)』(<홍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본), 권137, <공역(工役)>, 1747년, 113쪽

42) 마카오탑봉업직업공회, 『기술지인(技術指引)』, 마카오탑봉업직업공회출판, 4쪽,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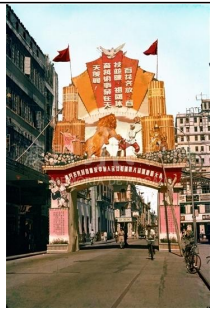

43) 마카오탑봉업직업공회, 『기술지인(技術指引)』, 마카오탑봉업직업공회출판, 5쪽, 2019

44) 마카오역사교육학회 제공, 약 1900

(通行橋), 명절에 세우는 패루(牌樓) 등에서 탐봉건축을 모두 볼 수가 있었는데 현재는 극장으로 사용되는 붕의 모습만을 볼 수 있다.⁴⁵⁾

또 다른 대표적인 탐봉건축은 1949년부터 생긴 국경일 패루인데 이런 패루는 삼나무 두 개로 길을 가로지르고 대나무 막대기로 설계를 따라 붕 골격을 조성하고, 그 위에 널빤지를 깔아 국가의 업적과 모습을 그려 놓았다.

표 9. 탐봉건축의 주요 용도

수영붕 ⁴⁶⁾	패루 ⁴⁷⁾	관람석 ⁴⁸⁾
		

1960년대에는 국경일 패루가 가장 많았으며, 마카오 각 지구의 대로에 10여 개의 패루가 분포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국경일의 형식이 바뀌면서 국경일 패루용인 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건축가와 예술가들의 사랑을 받아 예술품 설치나 전시용 장치로도 활용되고 있다. 현재 마카오 탐봉 건축의 가장 중요한 유형 중의 하나가 바로 임시가설 무대가 필요한 극장용이다. 예를 들면 마카오 매년 가장 중요한 다음과 같은 시기에 이러한 극장이 만들어진다.

- (1) 마카오 마조(媽祖) 탄신일(음력 3월 23일) 극장
- (2) 마카오 콜로안네섬[路環島]의 담공(譚公) 탄신일(음력 4월 8일) 극장(그림2)⁴⁹⁾

탐봉 기술은 현재 마카오 지역에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올라 있어 짓기도 쉽고 해체하기도 쉬운 특징이 있다. 탐봉 기술은 건설 형식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역사 발전의 과정에서 마카오 지역의 중국 민간 신앙활동, 종교와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많은 건축 기술과 용어는 여전히 고대 장인들의 전통

45) 마카오탐봉업직업공회, 『기술지인(技術指引)』, 마카오탐봉업직업공회출판, 2019

46) 唐嘉는 마카오 외항부두에서 촬영, 약 1970

47) 譚啓漢은 마카오 신말로(新馬路)에서 촬영, 1957

48) 광성전호기박물관(廣星傳呼機博物館) 제공, 1983

49) 『마카오일보』, 2019년 5월 20일자



그림 2. 건설 중인 담공 탄신일의 극장(골조)

을 보존하고 있다. 지난 세기 1950-80년대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되지 않았을 때 당시 중국인들은 시대적인 특색이 있고 큰 길을 가로지르는 패루를 건설하여 조국에 대한 감정을 전달하였다. 다만 아쉽게도 대부분 일회용 건축물이어서 문헌이나 옛 사진으로만 이런 패루를 볼 수 있을 뿐이다.

시대의 발전에 따라 탐봉기술을 위한 재료도 변화하였다. 설계도는 없지만 장인들이 구전으로 전수한 기법을 가지고 건축된 탐봉건물은 말뚝을 박지 않아도 늪늪한 습지에 견고한 수영장, 극장 등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역학적인 구조가 매우 뛰어났다.

5. 결 론

탐봉 건축은 언제든 조립·해체가 가능하고 건축 기간 및 사용 주기가 짧아 실물로 보존된 구조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마카오를 중심으로 한 여러 지역에서 개최되는 민속 활동으로 보존된 채루, 봉가 구조 및 유형의 연원을 살펴보기 위해 각종 문자 사료와 도상 사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마카오 탐봉 건축의 건축 자재, 용도, 구조의 세부 특징, 그리고 건축 용도는 오대 이후 발전해 온 탐봉 건축을 계승한 연속선 상위에 놓여 있음이 확인되며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탐봉 건축에 사용된 자재는 지금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즉, 봉식 구조물은 삼나무, 대나무 등으로 기본 형태를 만들어 하중을 견뎌왔으며 채색된 천과 종으로 장식했다. 또한, 건축 공정에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봉가가 사용된 것은 늦어도 송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청대에 들어서 황실 궁전 건축에서 중요한 기술로 여겨지면서 봉가를 활용하는 ‘탐계작(搭材作)’ 방식이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마카오 탐봉 건축으로 전승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둘째, 독립적인 가설물로서 봉식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가 시종일관 변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역에 따라 또는 시기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등장했다. 오대 말에서 송대에 이르기까지 홍보를 위한 상업용 구조물로 많은 사용되어 주로 채루환문의 형태로 주점, 여관, 향신료 상점 등 상업용 건축물의 문 앞에 세워졌다. 이는 장식을 위한 용도 외에도, 해당 가설물이 세워진 건축물이 상업 공간임을 암시하는 기능이 있었다.

봉식 패루는 근현대에도 광둥, 사천, 산서, 홍콩, 마카오 등지에서 여전히 유행했다. 그중에서도 마카오의 국경일 패루는 정치적 선전 효과를 지닌 구조물로, 1960~1970년대에 유행했다. 지역별 봉식 패루의 기본 구조 및 탑건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세부적인 명칭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외부 장식을 신소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시로는 산서의 청서채문루가 있다. 오늘날 산서 지역에는 전통 건축 기술로 봉식 패루를 짓는 뛰어난 장인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들이 만든 봉식 패루는 기념 일이나 축제에 홍보물로 사용된다.

셋째, 탄봉, 봉료 등 간단한 봉식 구조물은 규모가 작고 세우기가 쉬워 고대 시각적 자료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림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 마카오 지역의 화패는 청대 말기 가채와 굉장히 유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후자는 더욱 화려하고 규모가 컸으며 패방식 구조물에 사용됐던 건축 기술과 결합했다는 점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마카오에서는 신탄일을 기념하기 위한 극장이 3년간 지어지지 않았다. 패루 외에, 관람석이나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수영봉은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현재 마카오에는 탑봉 기술 중의 하나인 '수상탑(水上搭)'으로 수영봉을 탑건해 줄 아는 장인은 한 명뿐이며, 봉식 극장을 짓는 전 과정을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능숙한 장인 역시 손에 꼽는다. 이는 업계에 새롭게 뛰어난 학도들이 해당 기술을 현장에서 익힐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다양한 봉식 구조물의 유행과 소멸은 해당 지역의 역사, 정치, 경제적 특징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 설치와 해체가 쉬운 임시물인 봉식 구조물의 유행 및 발전 핵심은 바로 실용성이었다.

참고문헌

1. 맹원노(孟元老),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 (<흠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본), 1777

2. 이방(李昉) 등 모음, 『태평광기(太平廣記)』 (<흠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본), 1779

3. 이염(李濂), 『변경유적지(汴京遺跡誌)』 (<흠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본), 영인본 아카이브, 절강대학교도서관 제공

4. 광약허(郭若虛) 지음, 박은화 옮김, 『광약허의 도화견문지(圖畫見聞志)』, 서울, 시공사·시공아트, 1989

5. 광약허(郭若虛), 『도화견문지(圖畫見聞志)』 (<흠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본), 영인본 아카이브, 절강대학교도서관 제공

6. 등춘(鄧椿), 『화계(畫繼)』, 권7, 中華典藏: 鄧椿作品集, <https://www.zhonghuadiancang.com/xueshuzaji/huaji/22812.html> (검색일: 2023년 1월 10일)

7. 능몽초(凌蒙初), 『초각박안량기. 이각박안량기(初刻拍案驚奇. 二刻拍案驚奇)』, 남창, 강서미술출판사, 2012

8. 이계(李誠) 지음, 혁장욱(赫長旭), 란해(蘭海)(편역), 『영조법식』, 남경, 강소봉황과학기술출판사, 2017

9. 오자목(吳自牧), 『몽양록(夢梁錄)』, 항주, 절강인민출판사, 1984

10. 왕부(王溥), 『오대회요(五代會要). 하』, 장사, 상무인서국, 1941

11. 오승은(吳承恩) 지음, 임홍빈 옮김, 『서유기. 제10권』, 서울, 문학과지성사출판사, 2003

12. 이동양(李東陽) 등, 『대명회전. 오십육(大明會典. 五十六)』, 영인본 아카이브, Harvard - Yenching Library 제공

13. 『대청회전칙례(大清會典則例)』 (<흠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본), 1747

14. 애신각라·윤례(愛新覺羅·允禮) 등, 『공정주법(工程做法)』 (청·옹정 12년 간행본), 1734

15. 파이가·진균(瓜爾佳·震鈞), 『천지우문(天咫偶聞)』, 대북, 문해출판사, 1968

16. 부희년(傅熹年), 『북송, 요, 금의 회화 예술(北宋、遼金的繪畫藝術)』, [중국미술전집, 양송회화(상)], 북경, 문물출판사, 1995

17. 김유락(金維諾), 유건평(劉建平), 『영락궁벽화전집(永樂宮壁畫全集)』, 천진, 천진인민미술출판사, 1997

18. 서연홍(徐娟紅), 『산서성 청원진 채문루의 지역적 해석(山西省清源鎮彩門樓的地方性解讀)』, 요녕대학 석사논문, 2012

19. 유척우(劉濂宇), 『송대 채루환문 연구(宋代彩樓歡門研究)』, 건축사, 제2권, 2012년, 59~64쪽

20. 이준봉(李俊鋒), 『송대 산봉의 구조 및 역할에 관한 초보적 탐구(宋代山棚形制和作用初探)』, 서안건축과학기술대학학보: 사회과학판(西安建筑科技大学學報: 社會科學版), 제6권, 2019년, 35~41쪽

21. 이준봉(李俊鋒), 『송대 산봉 및 관련 명칭 분석(宋代山

20 논문

- 棚及相關稱謂辨析』, 상구사범학원학보(商丘師範學院學報), 제1권, 2020년, 72~76쪽
22. 진청(陳菁), 『송화 중의 채루환문』, 상해문박론총(上海文博論叢), 제3권, 2004년, 26~29쪽
23. 광미기(郭美琪), 『傲“竹”天下——搭棚業』, 마카오 잡지, 제107권, 2015년, 68~74쪽
24. 마카오탑붕업직업공회, 『기술지인(技術指引)』, 마카오탑붕업직업공회출판, 2019
25. 『팔대작(八大作)의 탑재작-상보상성(搭材作-相輔相成)』, 고궁박물관, <https://www.dpm.org.cn> (검색일: 2023년 1월 5일)
26. 토크타 칸(脫脫) 등 지음, 청나라 무영전수서저 간각(武英殿修書處刊刻), 『송사권 백오십이·여복지 제잉백육·여복오(宋史卷一百五十二·輿服志第一百六·輿服五)』 (<무영전이십사사(武英殿二十四史)>버전), 중국철학서전자화계획, https://ctext.org/library.pl?if=gb&file=79941&by_collection=7&page=1 (검색일: 2023년 1월 12일)

접수(2022.08.03)

수정(2023.01.28)

게재확정(2023.02.06)